노무현 대통령 주요 국정어록

한 · 미 관 계

〓 차 례 〓

1. 한미동맹 잘 가고 있습니다
2.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관계로
3. 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4. 군사협력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한·미동맹

1. 한 · 미동맹 잘 가고 있습니다

□ 한·미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방

최근 여중생의 사망과 관련한 촛불시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국과 다수의 EU국가들은 많은 젊은 이들을 파견해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촛불시위를 반미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촛불시위는 SOFA 개정이 주된 요구이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다 성숙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한·미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좋은 우방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미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방입니다. 지금도 상호 간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고 또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반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부 반미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여론은 한·미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한 관계를 맺어 갈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MCHAM, EUCCK 조찬간담회에서 2003. 1. 17)

□ 갈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더 큰 장애

저는 요즘 한국신문을 볼 때도 좀 괴롭고, 미국신문을 볼 때도 좀 괴롭습니다. 한국에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시위를 했는데, SOFA를 개정하자는 것이었어요. SOFA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합리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한·미관계에 관해서 보다 더 발전된 합리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시위를 반미 감정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6·25 당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 준 사실을,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실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반미를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국민 정서의 토대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면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사 방문 중 2003. 1. 15)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미 간에 혹시 갈등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등을 풀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필요하면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은 갈등 자체가 없어야 한다거나 조그만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생각이나 태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부딪혀 왔던 어려움이었고 앞으로 저도 아마 그런 어려움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회견에서 2007. 1. 23)

□ 한·미관계 공고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과거 십 수 년 동안 미뤄 왔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문제도 원만하게 합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6. 3. 3)

□ 한·미관계, 방향만 같다면 속도는 함께 조절할 것

생각하면 2003년 했던 걱정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북핵문제는 북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결말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한 발짝씩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방향이 한 단계씩 좋은 방향으로 와서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판을 깨기야 하겠습니까?

처음 참여정부 들어섰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관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노 대통령 성깔 있는 사람인데 사고 내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고 어떤 분은 제가 좀 미워서 저 사람 사고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미관계는 지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져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달라져 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10년쯤 뒤에 대화 테이블에 만났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대우 잘 받고 있구나, 하는 점차 상호적인 협력관계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오늘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한·미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합니다.

혹시 한·미관계에 관해 생각이 다르고 좀더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분들 있어도, 방향만 같다면 속도는 함께 조절해 가면서 국민 뜻을 모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남의 나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할 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2005. 9. 14)

2.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관계로

□ 한·미관계는 심각한 분열 없이 개선해 나갈 것

한·미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작전지휘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전지휘군 방위조약, 주둔군 지위협정 등등 군사관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자각을 가지고 고쳐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한두 가지의 전제가 함께 충족되거나 먼저 충족돼야 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제로 평화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었다고 할 때라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때도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위협이나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하면 불안심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완화 평화구조 정착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종합해서 제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5년 동안 이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할 만큼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국내에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각한 불안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면서 변화를 이뤄 내겠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외교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 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은 다 풀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 원고에 있어서 올해 안에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만, 꼭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2006. 1. 13)

□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손해도 안 보고 자존심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니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만 나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쟁이 생기고, 주한미군사령관의 한 마디가 온 나라 언론을 장식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이러한 의존상태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뜻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국방력은 총체적인 국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제조업과 첨단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과 사회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과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선진국 문턱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제61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2006. 8. 15)

지난주에는 우리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6·25전쟁의 와중에 넘겨 주었던 전시작전권이 62년 만에 한국군의 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

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2007. 3. 2)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 관계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나날이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를 이전하면 그곳에는 역사공원, 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안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안보역량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2007. 6. 19)

□ 자주국방 토대 놓겠다는 약속 실현단계 들어서

오늘은 참여정부 임기 중에 맞는 마지막 국군의 날입니다. 나는 취임 초부터 우리 군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거의 다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연평균 8.7% 수준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비는 2002년 7,0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 2,000억 원으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예 전차와 초음속 훈련기, 첨단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통해 전력의 첨단화

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 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2007. 10. 1)

3. 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 큰 틀의 원칙 지키되 융통성 발휘하는 외교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 경제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우선 외국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장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시에 발생하는 안보상황의 안보적 영향은 대부분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당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고려사항인 것입니다.

큰 틀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인 외교행위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외교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적인 행위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합니다. 균형외교이든 자주국방이든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옛날대로 가자고 하는 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고 일거에 바꾸자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

건건이 교환하는 방식이 외교는 아닙니다. 더욱이 한·미처럼 오랜 관계, 앞으로도 깊은 관계를 가져 갈 나라 간에 하나하나 교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국내·외 모두의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우선해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생각과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한·미 간에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아주 돈독한 협력관계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결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국과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에는 냉기류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기복이 있지만 북핵 해결 국면만큼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독하고 긴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북핵 공조엔 정말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파병 이전에 진정으로 이라크에 도움이 되려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부대편성과 역할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국민과 아랍 국가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면 외교적 갈등이나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도 터키 등은 인접국가여서 현지에서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도 일본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긴장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인접국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2003. 10. 23)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전후복구 참여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추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중요합니다. 또 세계 석유질서의 전망도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경제적 전망에도 또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파병이 결정된 후 미국은 APEC에서 북핵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병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신임 국면에서 지지자의 절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적어도 파병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존중할 것이며 방침이 결정되면 단호하게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통외통위 조찬 간담회에서 2003. 11. 6)

□ 이라크 파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최선의 판단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힘이 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 것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같은 임무라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 기꺼이 따라 주기 바랍니다. 옳다 그르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도 인간으로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군인으로 지내는 동안, 오직 상사의 명령, 그리고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국가의 결정을 따르는 일이고, 곧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뒷날 어떤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또 함께 정치를 한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역사적으로도 결코 비난받거

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서 2007. 3. 27)

□ 균형적 실용외교,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2007. 8. 15)

4. 군사협력넘어미래지향적동반자관계로서의한 · 미동맹

□ 미래지향적 다자 간 안보체제의 비전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라는 현재의 좁은 틀이 아니라, 중·일 관계의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동북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른바 균형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체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9·19성명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노력은 장차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자주국방의 기본 위에서 주한미군 발전적 역할 필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대해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 그만한 이익도 있어서 주둔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주둔은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자주국방으로 다할 수 있고, 그 밖에 미군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북억지력이 지금까지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역할입니다.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주둔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당장 큰 위험에라도 노출돼서 스스로의 안정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그와 같은 주한미군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태세는 우리가 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2003. 4. 18)

□ 6자회담 합의는 남북 평화체제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 갖추는 의미 있어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합의가 됐습니다. 2005년 9월 19일에 합의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 때문에 다시 정체되어 있다가 오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합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

이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성의를 갖고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잘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번 9·19 때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BDA를 의심스런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은 9·19성명이 있기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사실은 BDA에 대한 조치가 재무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이고, 또 다른 것은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간다는 것이 합의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 간 으르렁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다자안보 협력체라는 이런 틀이 갖춰지면 그때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 이제 새로운 가치를 향한 발돋움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2007. 2. 14)

□ 한·미 FTA 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의 길

한·미 FTA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한국 전체가 미국화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어느 나라 구분 없이 넘나드는 시대입니다.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한·미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자면 그쪽의 요구를 들어야 하고 시장개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습니다.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그 자체로 보기 나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칠레 회담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앞으로 FTA 경쟁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약한 것이 기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발명, 연구·개발 등입니다. 이어지는 법률, 회계 등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주변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력이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열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 적어도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를 차지해 나가자 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